

김제, 투자 적지로 '각광'

신성엔지니어링·에프엔에스솔루션·일강 투자협약 지평선일반산단에 336억원 투자... 신규 일자리 창출

전북도와 김제시가 3개 기업, 336억원의 투자를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0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신성엔지니어링·에프엔에스솔루션(주)·(주)일강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978년 신성농기구조작소를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자동차 부품에서 신기술 창조로 40여년 가까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고객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법인 설립하고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부지 1만1043㎡(3289평)에 투자 70억원, 고용 31명에 이르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투자로 사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계장비와 더불어 공장자동화와 이에 따른 생산설비 및 물류설비를 병행하는 명실공히 기계분야의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에프엔에스솔루션(주)는 설립된 지 3년 미만 창업법인으로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부지 9916.8㎡(3000평) 정도에 투자 80억원, 고용 30명을 창출하는 투자를 계획하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급변 투자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전언이다.

김제지평선산단 부지 5만888.5㎡(1만 5394평)에 186억원 투자 23명의 추가 고용인원을 하고자 증설 투자하는 (주)일강은 2004년 창립 이래로 가장 안전하고 뛰어난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고의 제품, 최고의

기술을 위해 노력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예상되는 전도유망한 기업이다.

이들 3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투자액 336억원 정도, 고용 예정인원은 84명 정도로 규모는 다소 작지만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농업용기계, 태양광부품,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등에 투자하는 내실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규모는 다소 작지만 기술과 경쟁력이 우수한 여러분들이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공장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기업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SFTS 발생증가에 따른 긴급회의 실시

전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지자체 및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도 보건의료과, 사회재난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보건소장이 참석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임상적 특성 및 도내 발생현황, 일선 시·군의 진단기 매개감염병 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논의하였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6월 현재까지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환자는 5명으로 전국 발생환자(24명)의 20%를 차지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C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사망자 6명)가 발생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 시 긴 옷을 착용하고, 귀가하면 즉시 샤워한 뒤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도 보건의료과에서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시·군 보건소장과 함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도 안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취득세 감면

전북도는 오늘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시) 내 자동차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협력업체 포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8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하는 감면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함으로써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해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자동화사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군산지역을 지난해 4월 5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협력업체 지원, 신규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지

원하고 있다. 군산을 포함한 현재 전국 9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감면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전북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세연구원의 감면타당성영역을 거쳐 적법성과 감면효과분석을 검증받아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신중을 했으며, 취득세 감면으로 기업유치활성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인원은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년까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성 기자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재현 산림청장장,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한 산림청-전북도-김제시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 다기능·다목적 해안형 수목원 조성

산림청·전북도·김제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김제 새만금복합도시에 151헥타르 규모로 조성... 1530억원 투입 도서·해안식물 주제로 문화·전시·연구·경관체험 공간으로 구성

미래의 땅 새만금에 세계 최초 다기능·다목적 해안형 수목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새만금 농업용지 내에 조성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친환경 녹색숲, 녹색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 김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재현 산림청장,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석해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인식을 함께 하고 협력 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도서·해

안 식물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이 보유한 해양·문화자원 기반의 새만금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토사의 확보를 비롯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협력하면서 추후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활성화를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6년까지 1530

억원이 투입돼 김제시 새만금복합도시에 151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간 구성은 도서·해안식물을 주제로 문화, 전시, 연구 및 경관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지며 해안식물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도서 식물 전시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과 수목원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세계 최초의 다기능·다목적 해안형 수목원으로 최신 지식과 기술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문화가 있는 날' 과 함께

박물관·미술관 등 도내 70개소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

전북도는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및 그 주간(6.24~6.30)에 풍성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문화향유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도 및 시군 문화회관 10개소에서 다양한 공연행사가 진행된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진행되는 '기념음악회', 정오의 햇살을 맞으며 진행되는 '오보에 앙상블', 정읍시립국악단의 흥명나는 '국악공연', 품격 있는 모차르트 바이올린연주 공연,

국악요정 송소희가 부르는 '국악, 재즈樂' 등 눈과 귀를 사로잡는 멋진 공연들이 실시된다.

이외에도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산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익산보석박물관, 최북미술관, 관소리박물관 등 22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관람료 할인 및 무료, 전시해설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8개의 도서관에서는 도서 2배 대출, 인문학강의 등이 제공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으로, 평소 경제

적·시간적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를 놓친 도민들이 가까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전북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확대를 통해 풍성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및 그 주간만이라도 가족·동료들과 함께 가까운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